

卒業生の就業擴大를 위한 方案 研究⁺

— 濟州大學校를 中心으로 —

姜志勇* · 康東彥** · 崔蕙善***

目	次
I. 序 論	2. 就業部署의 主要 事業 內容
II. 理論的 考察	3. 全國 綜合大學校의 就業率
1. 職業指導 理論	IV. 濟州大學生의 就業觀 調査
2. 職業觀과 職業選擇	V. 濟州大學校 卒業生의 就業擴 大 方案
III. 大學의 就業指導 機構 比較	
1. 就業擔當部署	

I. 序 論

전문적인 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임성과 사명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대학생들을 위한 就業指導活動의 필요성도 또한 보다 증대되고 있다. 근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산업의 분화와 분업화로 인해서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의 專門化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개인의 職業選擇의 자유와 여건을 폭넓게 다양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社會적으로 요청되는 人力養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전통적인 大學教育目的과의 심각한 葛藤과 새로운 대학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大學의 三大機能을 教授와 研究, 그리고 社會奉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역시 고등교육기관인 大學은 전통적인 學問과 研究의 機能 外에 現代社會의 요구에 따라서 産業社會와 관

⁺ “이 論文은 1986 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農科大學 助敎授

** 師範大學 助敎授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

2 學生生活研究

련을 갖는 현실 참여와 專門職業人을 양성해야 하는 時代的 사명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으로 대학교육을 관찰해 볼 때 先進國이나 後進國을 막론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大學을 育成시키고 있는 것은 國家 社會의 經濟發展에 따르는 人力開發이라는 次元으로 이해될 수 있다.

Harbison and Myers¹⁾가 「모든 國家에 있어서 교육은 직업을 얻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비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교육기관에서의 職業教育 및 職業指導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직업사회에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適應하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職業指導가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就業指導 活動이 더더욱 要求되고 있는 실정이다.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지난 '70년 83.8%에서 '83년은 78.1%, '85년 63.9%, '86년 53%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며²⁾ 이 때문에 그동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서비스 및 외판분야에까지 대학졸업생들이 몰려들고 高卒학력자가 주로 지원했던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등 大卒者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大卒 취업률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수년 사이에 2배 이상 증원된 대학정원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산업구조, 경제성장, 공업고도화 등 여러가지 與件을 감안해 본다면 고급 인력의 고용을 한꺼번에 급격히 늘리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당분간 계속 大卒者의 취업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는 產業構造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偏重되어 있어 고용효과가 큰 2차 산업은 미미한 실정이라서 道內 就業의 需要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히 대졸자의 就業門은 아주 작은 實情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中央과 遠隔히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道外 就業을 하는 데도 육지부의 여러 대학에 비해서 제주대학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濟州大學生의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86학년도 순수 취업률은 21.9%로 지방소재 종합대학 평균 순수 취업률 44.0%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1) F. Harbison C. A.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N. Y., 1964.

2) 조선일보 1986년 10월 16일자.

Ⅱ. 理論的 考察

1. 職業指導 理論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職業指導 理論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接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心理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접근이고, 둘째는 社會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접근이며, 그리고 셋째는 經濟學的인 面에 있어서의 接近이다.³⁾ 이 중에서 학교교육 중심의 직업지도 이론에서는 심리학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生活指導, 특히 카운슬링 중심의 이론이 心理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主導되고 또 행동변화라는 교육적인 작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進路나 選職의 問題는 결코 심리학적 고려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졌을 때 균형있고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 경제적 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직업지도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일반적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心理學的 接近의 視角

職業指導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다른 어느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이론적인 면에서 많은 문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크게 類型化시켰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特性要因理論(Trait factor approach)이고, 둘째는 發達理論(Developmental Theory)이며, 그리고 셋째는 性格理論(Personality Theory)이 그것이다.⁴⁾ 特性要因 理論은 현대적 생활지도 운동에 기폭적 역할을 하고 직업지도를 창설했던 F. Parsons를 창시적 인물로 보고 Howard Bell, Edmund Williamson 등이 그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고 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러한 직업적 특성을 요구하는 직종에 배치케 함으로써 직업지도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能力, 適性, 抱負, 缺點 등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 뒤 갖가지 직업이 그 직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비조건이나 장래 전망 등을 분석하여 그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종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기초한 직업지도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해석을 내리며 이에 적응되는 직종을 찾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이 그 활동의 주된 일이 된다. 그러나 S. Weinrach는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결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① 이 이론은 현재 사용되

3) Richard Rehberg, "Career Counseling in contemporary U. S. High school" i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79, p.100.

4) 前掲書, p.105.

고 있는 검사기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② 한 사람의 검사된 관심이 곧 직업적인 관심으로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한 사람의 검사된 관심이 평생을 통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④ 직업발달이 기본적으로 정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⑤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올바른 선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⁵⁾ 둘째, 發達理論을 살펴보면 1942 Super에 의하여 출간된 “Dynamics of Occupational Selection”에 관련된 모노그래피에서 처음으로 이용되어 Ginzberg, Tiedeman 등에 연결되는 일련의 대표적 학자들이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개인의 직업선택은 어느 한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업지도는 직업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職業發達(Vocational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⁶⁾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개인을 과거의 발달단계에 의하여 형성된 개인 또 앞으로 발달해 나갈 개인으로 보고 조언하자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더불어 이들은 인간의 발달단계나 발달과정 및 여기에 따르는 自我概念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비록 인간 발달과 의사결정에 역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선직에 있어서는 特性要因理論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Ginzberg 나 Super의 글을 통하여 볼 수 있다.⁷⁾ 셋째, 性格理論, 이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A. Roe와 J. Holland를 들 수 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특성과 직업특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직업선택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특정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Holland는 직업발달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에 취업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性格差에 적절한 職業類型을 관련짓기 위하여 性格型과 職業型을 몇 가지 類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Holland는 性格型으로 現實型(Realistic type), 知力型(Intellectual type), 社會型(Social type), 傳統型(Conventional type), 企業型(Enterprising type) 및 藝術型(Artistic type)의 6가지로 나누어 이들이 갖는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의 분류를 위해 그의 독특한 S, D, S. form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Roe는 Holland의 傳統型 代身 文化型(General Culture type)을 제시하고 있다.⁸⁾ 그리고 이같은 性格型에 적절한 직업형을 제시하여 歸屬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격기능과는 달리 性格形成의 과정과 자기이해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2) 社會的 接近의 視角

進路指導에 대한 社會學的 接近은 社會階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에

5) S.G. Weinrach, How Career choice are made. N.Y.: Mass Information Corporation, 1975.

6) E. Ginzberg and Others, Occupation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 Y. 1951.

7) Richard Rehberg. 前掲書, p.115.

8) 前掲書, p.116.

바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관련된 사회학적 탐구는 직업이 갖는 威信, 權力, 富 등 사회적 평가나 지위에 깊이 의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일찌기 Moore, Barber, Inkeles, Dancan 등은 넓게 社會體制 속에서의 構造機能問題를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거나, 또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어지는 직업적 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하였었다. 따라서 이들은 개개인들이 행하는 선직에 관한 연구보다 개인의 선직에 제한을 직업적 기회배분이나 부모의 지위와 같은 구조적면을 살펴보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었다.

그러나 近來 개인의 選職研究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발전되어지고 있다. 職業群에 대해 地位點數를 부여하는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성 있는 측정 방법의 개발과 사회계층 연구에의 Path analysis 방법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⁹⁾ 여기에는 P. M. Blau와 O. D. Dancan 을 비롯하여 D. L. Featherman, J. S. Picou 등이 그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測定作業을 통해 얻어지는 직업에 대한 地位點數는 과거 경제적인 연구에서 흔히 사용했던 事務職 對 勞務職式의 형태로 분리 비교하던 방법에 비하여 직업적 차이를 발견하는 데 현저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법상의 발전이 Path analysis 방법을 채택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의 개발로 해서 사회계층 및 직업선택 연구에 커다란 두 가지의 변화를 야기시켜 주게 되었다.¹⁰⁾ 즉 그 하나는 地位移動의 개념이 현재의 지위에 주어지는 득점에서 과거의 지위에 주어지는 득점을 빼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는 모호하게 표현되던 지위 이동 연구가 명확하게 得點으로 표현되는 地位成就 (Status attainment) 연구에로 사회계층 연구의 초점이 변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이동 연구에 있어서는 주된 從屬變因이 본인의 현재 지위와 부모의 地位隔差 및 본인의 현재 지위와 과거 지위와의 차이 등이 되는데 비하여 地位成就 연구에서는 주된 從屬變因이 본인의 현재 지위가 되게 된다. 따라서 지위성취 연구에서는 모든 과거지위나 부모의 지위는 현재 지위에 영향을 주는 獨立變因으로 취급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영향은 이 방법의 개발이 사회계층 연구의 분석차원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종래의 연구는 전체사회 속에서 父母와 子息 사이에 차이나는 계층이동 경향을 두고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반하여 地位成就 研究에서는 개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父의 지위가 자식의 지위에 작용된 機制 (mechanism) 分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모의 지위에서 자식의 현재 지위로 유도되고 이끌어져온 과정을 알기 위하여 교육적 성취나 사회 심리적 과정 변인 등 여기에 영향을 준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9) O. D. Dancan,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 N.Y.: Seminar Press, 1972.

10) R. Rehberg, 前掲書, p.119.

본인의 지위성취에 작용된 변인들로서 부모의 지위, 부모의 교육정도, 본인의 교육정도, 본인의 최초 직업 및 주위의 인간관계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학자가 보는 進路計劃이나 選職에 대한 관점은 직업이 갖는 威信과 社會的地位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지위가 주는 영향이나 교육 및 인간관계의 영향을 강조 고려한다는 데 있게 된다.

3) 經濟學的 接近의 視角

직업선택에 관련된 經濟學的研究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즉 그 첫째는 有用性(Utility) 면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人間資本(Human Capital) 측면에서의 접근이 그것이다.¹¹⁾ 前者가 직업선택에 있어서 勞動의 수요공급을 중심으로 勞動과 餘暇에의 時間配定 分析에 주된 관심이 주어진다면 後者는 生産性에 관련된 인간교육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有用性 理論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현대의 경제학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의 選擇性에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소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구매력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만족 및 유용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이론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생각이 직업선택에 적용될 때는 직업을 통해서 얻는 賃金(購買力)과 餘暇(滿足을 위한 支出)와의 관계 형태로 전개된다. 그러고 보면 많은 支出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進路相談이 개인의 특정한 진로결정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 때 개인의 직업선택도 이같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勞動에의 수요 공급과 임금의 수준은 항상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巨視經濟學的 분석도 직업선택 지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개인의 요구에 맞는 직업선택 지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經濟變動이나 需要創出 없이는 그 지도는 무용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인간자본 이론은 자본에 대해 물리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인간자본을 중요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Thurow에 의하면 인간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生産技術이나 技能 및 知識으로 定義하고,¹²⁾ 다시 이를 생산된 상품이나 용역이 갖는 양과 가격을 곱하여 얻은 가치로 계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이나 훈련 및 건강 등에 투입되는 돈은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보고 이들이 추후 일을 해주고 얻는 보수를 回收로 보아, 이같은 投資와 回收의 관계에서 직업선택 문제를 분석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이때 經濟學에서 강조되고 있는 現在의 價値가 投資理論에서 중요하게

11) 前掲書, p.124.

12) L. C. Thuro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Wadson Publishing, 1970.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이론을 직업선택과 더불어 직업지도 특히 投資可能性이나 연령 및 미래의 資本回收 可能 時期 등에 관련된 投資決定에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Schultz, Thurow, Taubman 등은 이 분야의 代表的 學者들이 된다.

2. 職業觀과 職業選擇

직업은 자아실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아야 하고 경제적 보상이 적절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 경제적 필요도 충족될 수 있을 때 직업생활이 보람스러울 것이다.

올바른 職業觀은 個人的으로는 보람을 안겨다 줄 것이며 社會的으로는 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다.

職業選擇의 基準은 먼저 自身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정보를 통해서 그 職業의 性格을 파악하고 자신의 조건 즉 적성, 흥미, 성격, 학력, 지능, 신체적 조건 등이 자신의 인생목표와 비교하여 尙致된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自己自身の 特性을 파악하는 데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종 心理檢査와 父母, 教授, 선배, 기타 助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相談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職業에 따라 요구되는 條件이나 資質이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自身이 선택하려는 職種에 대해서 精確한 情報를 미리 알아야 한다. 장차 택하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알고 만족할 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大學出身者 즉 高級人力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基本的으로 고려하고 있다.

첫째, 個人的 직무수행 능력이다.

물론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의 내용과 수준이 같지 않지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령 運이 좋아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적응할 수가 없어 실패하고 말 것이다. 특히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충분한 지식,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로서 외면당하고 있다. 現代社會가 그야말로 能力 第一主義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大學 四年 동안에 自身의 能力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대학 출신자의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職業適性和 興味이다.

원래 適性の 概念은 廣意의 概念과 狹意의 概念으로 나누는데 廣의의 적성은 미래의 학습 또는 성공을 예언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든 特性을 의미하고 狹의로는 개인의 지적능

력에만 국한되는 몇 개의 비교적 單一特性들을 의미한다.¹³⁾ 이렇게 보면 직업 적성이란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적성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 적당한 소질을 말하는 광의의 적성을 말한다. 특정한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알맞는 소질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직업적성 검사는 필수적으로 반아서 자신의 적성이 어떤 職業에 가장 적합한가를 판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教師職이 自己適性에 맞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教師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에서 적성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인이다.

그런데 개인의 職業適性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職業에 대한 個人的 興味이다. 흥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職業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흥미가 없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란 선천적으로 지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따라서 현재는 흥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과 환경 여하에 따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흥미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장래의 설계를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다.

세째, 身體的 條件과 건강상태이다.

아무리 충분한 지식, 기술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身體的인 條件이 맞지 않으면 특정 직업을 원한다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就業目標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신체적인 요인은 선천적인 것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짧은 기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노력하면 향상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就業情報를 정확히 수집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부합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적인 것과 관련하여 모든 직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건강상태이다. 물론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있고 이 양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행복의 제일 조건이지만 특히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째, 어떤 人間性을 갖고 있느냐를 중시한다.

13) 任寅宰, 人間成長과 職業教育, 「새 교육」 5월호, 대한교육협회, p.51, 1976.

14) Kenneth E. Clark, Vocational Interest Testing,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6, N. Y., 1974.

즉 어떤 人格, 어떤 品性を 갖고 있느냐는 어떤 種類의 職業에서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한다. 풍부한 지식, 뛰어난 재질을 갖추고도 人間性이 좋지 못하여 끝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허다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조직생활, 직장생활에서는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좋지 못하면 쉽게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人間性이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장생활 즉,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간성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훌륭한 人格, 조화로운 人格者 養成이 아닌가? 사회에서 大學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훌륭한 人格을 갖춘 實力있는 能力人을 양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 사회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有能人을 길러내지 못하면 그 社會는 결코 발전할 수 없고 大學도 存在할 필요성을 잃고 말 것이다. 人格과 能力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個人的으로도 職業生活의 成功要因이 된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高級 人力群에 포함되려면 최소한 이상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다음 개인이 특정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인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업이란 흔히 天職(Calling)으로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召命, 즉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전통적인 職業觀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召命意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職業選擇 以後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선택의 자유가 적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지만 현대사회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시대이므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택한다. 따라서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個人的 要求와도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보수(Salary)가 적절해야 한다.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보수는 직업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이고 보편적인 이유이다.

쉽게 말하면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일정한 돈이 없으면 독립 生活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봉급 수준이 어떠한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댓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수에 불만이 없는 직업을 택해야 한다.

둘째, 職業의 社會的 價値이다.

모든 일, 모든 職業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個人的 理念이나 職業觀과 합치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수입이 보다 많은 직업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보다 노력이 덜 드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個人的 社會的 地位를 평가하는 중요한 조

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느냐는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前者는 그야말로 돈을 위한 직업이고, 後者는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므로 두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꼭 같지 않다.

세째, 승진 또는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순수한 종교적인 직업, 즉 신부, 목사, 승려직, 그리고 학자나 개인적인 직업 즉 시인, 소설가, 화가 등에게는 승진기회가 별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외 대부분의 직업에서 승진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많은 편이냐, 적은 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地位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승진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자기 발전의 기쁨 또는 성장 기회가 많은 직장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네째, 취업에 따른 作業條件이 어떠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직장과의 거리, 교통수단과 편의 여부, 후생복지 상황, 일의 종류와 作業環境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특히 작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협력이 어려운 사람, 對話가 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충분한 직장 분위기와 일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직장의 기준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존경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놓고도 협력할 수 있는 동료나 上位職人이 있어야 한다. 현대인에게 직장은 바로 生活의 場이자 행복의 수단이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직업의 안정성과 신분보장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自我實現의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선택한 직업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어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大學卒業者가 직업의 안정성이나 신분보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거나 현재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직업을 선택했다가 후회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개인 기업체, 그 중에서 신용 기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 등은 좋은 보기이다. 보수가 적절한가, 직업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어떠한가, 승진 기회가 많은가, 작업 조건은 어떠한가, 직업의 안정성과 신분 보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충분히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 직업을 잘못 선정하면 앞으로의 자기 인생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것이므로 신중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직업선택은 제2의 결혼과 같은 것이므로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자기 자신의 조건과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합치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 어떤 사람에게나 보편적인 원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Ⅲ. 大學의 就業指導 機構 比較

몇몇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취업 담당부서와 주요 사업 내용 및 全國 종합대학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就業擔當部署

大學内の 취업담당부서, 인원, 그리고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표3-1>과 같다.

<표3-1> 各 大學別 就業擔當部署 現況

대학 구분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경희대	중앙대
취업담당부서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내 취업보도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및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	학생처 학생과	학생처 취업지도과
인원	2명(교육 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1명(고용 직)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2명(교육 연구사 1명, 행정직 1명)	1명(행정 직 1명)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4명(연구관 1명, 전임연구원 1명, 연구사 1명, 조교 1명)	2명(주임 1명, 외 1명)	3명(과장 1명, 외 2명)
연간 예산	5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	*

* 자료: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는 무응답)

각 대학의 취업담당부서는 국립대학인 경우는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사립인 경희대는 학생처 학생과에서, 중앙대는 학생처 취업지도과에서 하고 있다. 제주대학인 경우는 취업부서가 학생처 장학담당관실과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취업부서가 二元化되어 있다.

취업담당부서의 인원은 대부분이 2~3명이나 충북대가 1명으로 가장 적고 제주대학은 취업부서가 二元化되어 있어서 인원이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부서의 연간 예산은 전남대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대가 800만원이며 나머지 국립대는 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인 경희대와 중앙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2. 就業部署의 主要 事業 內容

各 대학 취업부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3-2>와 같다.

<표3-2> 主要事業 內容

대학 내용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경희대	중앙대
주요 사업 내용	① 취업특강 년 1회 실시 ② 취업자료 구입 → 학생들에게 전달	① 진로지도 구성위원회 를 본부 및 단대 별로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체 순 방 ② 취업특강 및 각 영역별 특 강 실시	① 취업정보 세미나 년 2회 실시 (기업인사, 교수, 학생 출신 대학 신입 사원) ② 취업특강	① 도내의 기업체 순방 ② 취업특강	① 취업지도 운영회를 구성하여 중 심으로 호남지역 및 기업체 순방 ② 취업특강 년 2회 실시 (본교 출신 및 기 업체 인사)	① 취업특강 실시 ② 어학 및 취업과목 요약 특강 실시 ③ 졸업생 현황 및 학 교 현황을 제작하여 기 업체에 홍보	① 취업특강 년 1회 실시 ② 어학 및 취업과목 연중 실시 ③ 채용공 고 안내서 연중 게시	① 취업특강 수시 실시 ② 취업 중앙위원회 를 구성하여 기업체 순 방	① 취업특강 실시 (전반 기: 취업준비 를 위한 정보 제공) (후반기: 실제 취업을 위한 특강 실시) (예) 서류작성 법 면접요령 등
자료 발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없다.
자료 실 운 영	없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전담직원 1명)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규모 6 평)	없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료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특강과 기업체 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대의 경우는 특이하게 졸업생 현황과 학교 현황을 홍보용 책으로 만들어서 기업체에 발송함으로써 대학과 졸업생의 현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알려줌으로써 취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정보”라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다. 제주대학인 경우 기업체 방문 또는 대학의 현황이나 졸업생 현황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체에 발송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필요시에 찾아 볼 수 있는 취업 자료실이 없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全國 綜合大學校의 就業率

서울 소재 종합대학으로서 순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국대학으로 63.2%이고 다음이 고려대가 62.5%, 서울시립대가 58.5%, 한국외국어대 52.9%의 順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종합대학으로서 순수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아주대학으로 64.4%이고 다음이 인하대 58.4%, 계명대 55.8%, 부산산업대 55.4%, 경북대 52.5%, 조선대 52% 順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순수 취업률이 21.5%로 지방 소재 종합대학 중에서 순수 취업률이 가장 낮아서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나타내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취업률은 '83년의 68.2%, '84년의 60.5%, '85년의 44.4%, '86년의 32.8%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순수 취업률도 계속 줄어들어 '86년에는 21.9%로 지방 소재 종합대학 평균 순수취업률 44.0%보다 훨씬 낮아서 제주대학교 졸업생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보여주고 있다.

전국 종합대학의 취업률을 보면은 <표3-3>과 같다.

<표3-3> 全國 綜合大學校의 就業率 '87.2.28 현재 (단위:명,%)

구분 학교명	졸업생			전체 취업		순수취업		진학		유학		군입대		미취업	
	남	여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 건국	1,570	422	1,992	1,414	71.0	1,030	51.7	182	9.1	12	0.6	190	9.5	578	29.0
* 경기	1,126	290	1,416	773	54.6	522	36.9	57	4.0	0	0.0	194	13.7	643	45.4
* 경희	1,336	780	2,116	1,515	71.6	990	46.8	132	6.2	8	0.4	385	18.2	601	28.4
고려	2,220	1,037	3,257	2,815	86.4	2,034	62.5	405	12.4	0	0.0	376	11.5	442	13.6
울국민	1,108	449	1,557	716	76.0	580	37.3	54	3.5	33	2.1	49	3.1	841	54.0
* 단국	1,257	575	1,832	954	52.1	663	36.2	107	5.8	2	0.1	182	9.9	878	47.9
소동국	1,566	643	2,209	1,671	75.6	1,396	63.2	119	5.4	0	0.0	156	7.1	538	24.4
* 명지	1,259	160	1,419	870	61.3	592	41.7	73	5.1	11	0.8	194	13.7	549	38.7
재* 서강	809	329	1,138	218	80.7	493	43.3	185	16.3	46	4.0	194	17.0	220	19.3
* 서울	3,663	1,329	4,992	4,175	83.6	2,018	40.4	1,517	30.4	112	2.2	528	10.6	817	16.4
총* 서울시립	616	163	779	586	75.2	456	58.5	32	4.1	1	0.1	97	12.5	193	24.8
* 성균관	2,459	999	3,458	2,326	67.3	1,764	51.0	213	6.2	27	0.8	322	9.3	1,132	32.7
합* 숭실	1,129	281	1,410	896	63.5	658	46.7	112	7.9	9	0.6	117	8.3	514	36.5
연세	2,243	1,318	3,561	3,092	86.8	1,837	51.6	763	21.4	0	0.0	492	13.8	469	13.2
대* 중앙	1,561	638	2,199	1,475	67.1	1,106	50.3	166	7.5	0	0.0	203	9.2	724	32.9
* 한국외국어	1,332	793	2,125	1,529	72.0	1,125	52.9	282	13.3	15	0.7	107	5.0	596	28.0
* 한양	2,375	687	3,062	2,564	83.7	1,450	47.4	411	13.4	10	0.3	693	22.6	498	16.3
홍익	1,174	666	1,840	1,388	75.4	848	46.1	262	14.2	28	1.5	250	13.6	452	24.6
소계	28,803	11,559	40,362	29,677	73.5	19,562	48.5	5,072	12.6	314	0.8	4,729	11.7	10,685	26.5

(계속)

14 學生生活研究

학교명	구분	졸업생			전체취업		순수취업		진학		유학		군입대		미취업		
		남	여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지경방소재부종합대	* 강원	1,602	800	2,402	1,129	47.0	801	33.3	60	2.5	0	0.0	268	11.2	1,273	53.0	
	* 경남	1,868	581	2,449	1,554	63.5	1,190	48.6	54	2.2	5	0.2	305	12.5	895	36.5	
	* 경북	2,774	1,869	4,643	3,722	80.2	2,437	52.5	621	13.4	8	0.2	656	14.1	921	19.8	
	* 경상	1,290	833	2,123	1,347	63.4	1,034	48.7	95	4.5	0	0.0	218	10.3	776	36.6	
	* 계명	1,998	1,207	3,200	2,347	73.3	1,784	55.8	167	5.2	9	0.3	387	12.1	853	26.7	
	* 내국	1,423	808	2,231	940	42.1	770	34.5	53	2.4	4	0.2	113	5.1	1,291	57.9	
	* 동아	2,662	1,203	3,865	2,366	61.2	1,997	51.7	125	3.2	2	0.1	242	6.3	1,499	38.8	
	* 동의	880	338	1,218	467	38.3	365	30.0	27	2.2	0	0.0	75	6.2	751	61.7	
	부산																
	부산산업	785	653	1,438	911	63.6	797	55.4	36	2.5	2	0.1	79	5.5	524	36.4	
	* 아주	688	101	789	683	86.9	508	64.4	67	8.5	9	1.1	102	12.9	103	13.1	
	* 영남	3,312	1,346	4,658	3,257	69.9	2,357	50.6	117	2.5	9	0.2	774	16.6	1,401	30.1	
	* 울산	1,182	226	1,408	593	42.1	400	34.8	15	1.1	0	0.0	88	6.3	815	57.9	
	* 원광	2,172	1,047	3,219	1,770	55.0	1,319	41.0	154	4.8	0	0.0	297	9.2	1,449	45.0	
	인하	2,854	693	3,547	2,734	77.1	2,071	58.4	160	4.5	0	0.0	503	14.2	813	22.9	
	전남	2,377	1,698	4,075	1,599	39.2	1,238	30.4	233	5.7	5	0.1	123	3.0	2,476	60.8	
	* 전주	755	460	1,215	689	56.7	586	48.2	19	1.6	0	0.0	84	6.9	526	43.3	
	* 제주	823	574	1,397	452	32.4	301	21.5	24	1.7	0	0.0	127	9.1	945	67.6	
	조선	2,846	1,154	4,000	3,024	75.4	2,079	52.0	264	6.6	21	0.5	650	16.3	986	24.7	
	* 청주	1,186	567	1,753	950	54.2	767	43.8	41	2.3	0	0.0	142	8.1	803	45.8	
* 충청	2,010	1,204	3,214	1,675	52.1	1,044	32.5	238	7.4	9	0.3	384	11.9	1,539	47.9		
* 충북	1,700	805	2,505	1,009	40.3	577	23.0	137	5.5	1	0.0	294	11.7	1,496	59.7		
* 한남	929	620	1,549	766	48.2	525	33.9	38	2.5	7	0.5	176	11.4	803	51.8		
소계	38,111	18,787	56,898	33,960	59.7	25,087	44.0	2,745	4.8	91	0.2	6,087	10.7	22,938	40.3		

자료: 리쿠르트 5월호, 1987

제주대학교의 취업률의 변화 추세는 <표3-4>와 같다.

<표3-4> 제주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구분	연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졸업인원		416	837	1,143	1,286	1,377
취업인원		116	571	691	571	452
취업률 (%)		27.9	68.2	60.5	44.4	32.8
순수취업자		* -	373	408	404	301
순수취업률		* -	44.6	35.7	31.4	21.9

* 순수취업률은 군입대, 대학원 진학, 유학 제외임.

* 리쿠르트 조사와는 차이가 다소 있음.

자료: 학생생활연구소

IV. 濟州大學生의 就業觀 調査

1. 調査의 目的

본 조사는 濟州大學校 在學生들의 就業傾向 및 現況을 分析하여 在學生을 위한 效果的인 就業指導의 方案을 모색함으로써 본교생은 위한 職業指導의 計劃樹立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調査對象

본 조사를 위하여 濟州大學校 在學生을 대상으로 大學別 性別로 나누어 450 명을 隨意標集하였으며 회수율은 <표4-1>과 같다.

<표4-1> 각 대학별 표집·조사대상 및 회수율 분포

구 분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80	71	88.6
사 회 과 학 대 학	"	79	98.8
사 범 대 학	"	65	81.2
농 과 대 학	"	77	96.3
해 양 과 학 대 학	"	75	93.8
이 공 대 학	"	66	82.5
야 간 강 좌 부	60	43	71.7
계	540	476	88.1

3. 調査道具

본 조사를 위하여 就業에 관계되는 내용을 22개의 질문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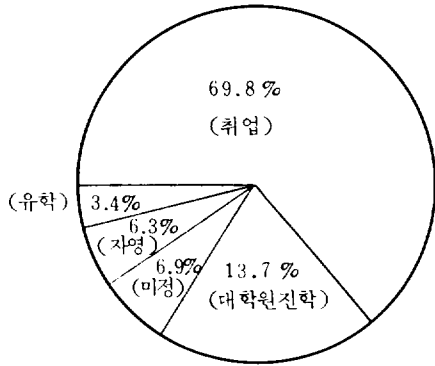
4. 資料處理

표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으며 아직까지도 수의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것을 감안 평균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1) 졸업 후의 희망은?

본 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의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을 설정 조사하였다.

< 그림 4-1 >



① 취업, ② 대학원 진학, ③ 자영, ④ 유학, ⑤ 미정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①의 경우가 총 학생 476명 중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② 즉 진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 13.7%이고 ⑤의 경우도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 >

		취업		대학원 진학		자영		유학		미정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	인문대학	47	66.2	8	11.3	3	4.2	4	5.6	9	12.7	71	100
	사회과학대학	63	79.8	3	3.8	7	8.9	3	3.8	3	3.8	79	100
	사범대학	47	72.3	10	15.4	2	3.1	1	1.5	5	7.7	65	100
	농과대학	50	64.9	13	16.9	7	9.1	3	3.9	4	5.2	77	100
	해양과학대학	47	62.7	15	20.0	5	6.7	3	4.0	5	6.7	75	100
	이공대학	46	69.7	9	13.6	5	5.6	2	3.0	4	6.1	66	100
	야간강좌부	32	74.4	7	16.3	1	2.3	-	-	3	7.0	43	100
성별	남학생	183	62.2	48	16.3	26	8.8	15	5.1	22	7.5	294	100
	여학생	149	81.9	17	9.3	4	2.2	1	0.6	11	6.0	182	100
계 (평균비율)		332	69.8	65	13.7	30	6.3	16	3.4	33	6.9	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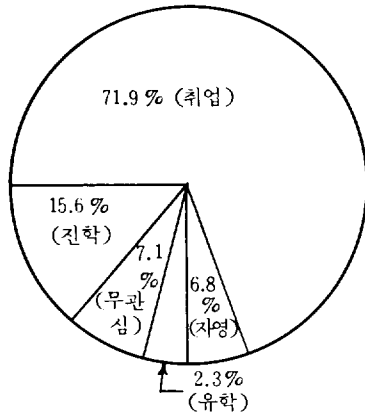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①의 경우 여학생이 81.9%로 남학생(62.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③과 ④는 남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②의 경우도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단과대학의 경우는 사회과학대학이 ①을 희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아 79.8%이고 야간강좌부(74.4%), 사범대학(72.3%) 순이며 ②의 경우는 해양과학대학(20.0%), 농과대학(16.9%), 야간강좌부(16.3%) 순이다. ③은 농과대학이 가장 높아 9.1%, 사회과학대학(8.9%), 해양과학대학(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견해

본 설문은 학생들이 졸업후 진로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을 설정 조사했다.

<그림 4-2>



<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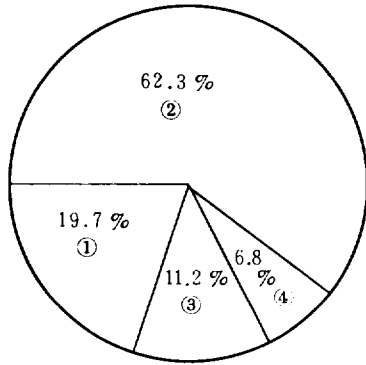
		취업		대학원 진학		자영		유학		별로상관치않음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49	69.0	6	8.5	2	2.8	2	2.8	12	16.9	71	100
	사회과학대학	61	77.2	10	12.7	4	5.1	1	1.3	3	3.8	79	100
	사범대학	54	83.1	9	13.9	-	-	-	-	2	3.1	65	100
	농과대학	48	62.3	16	20.8	4	5.2	-	-	9	11.7	77	100
	해양과학대학	49	65.3	18	24.0	2	2.7	3	4.0	3	4.0	75	100
	이공대학	49	74.2	9	13.6	1	1.5	5	7.6	2	3.0	66	100
	야간강좌부	32	47.4	6	14.0	2	4.7	-	-	3	7.0	43	100
성별	남학생	192	65.3	58	19.7	71	3.7	8	2.7	25	8.5	294	100
	여학생	150	82.4	16	8.8	4	2.2	3	1.7	9	5.0	182	100
계 (평균비율)		342	71.9	74	15.6	15	3.2	11	2.3	34	7.1	476	100

위 표에서 ①을 원하는 경우는 여학생 부모님이 82.4%로 남학생 부모님(65.3%) 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 부모인 경우는 ②가 19.7% ③이 3.7%, ④가 2.7%로 여학생 부모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①을 원하는 학부모님은 사범대학이 8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야간강좌부(74.4%), 이공대학(74.2%), 사회과학대학(77.2%) 순이며 ②는 해양과학대학(24.0%), ③은 농과대학(5.2%), ④는 이공대학(7.6%), ⑤는 인문대학(16.9%)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취업을 한다면 취업과 전공분야와의 관련 여부

< 그림 4-3 >



본 설문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문항을 작성 조사하였다.

- ①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택하겠다.
- ② 가능한한 전공과 관련있도록 하겠다.
- ③ 전공과 관련 없다.
- ④ 우선 취업한 후 전공과 관련있는 분야로 옮기겠다.

그림과 표는 그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 표 4-4 >

		①		②		③		④		계	
		N	%	N	%	N	%	N	%	N	%
단과대학	인문대학	7	10.0	41	58.6	12	17.1	10	14.3	70	100
	사회과학대학	17	21.5	52	65.8	6	7.6	4	5.1	79	100
	사범대학	14	21.5	45	69.2	1	1.5	5	7.7	65	100
	농과대학	10	13.0	60	77.9	6	7.8	1	1.3	77	100
	해양과학대학	25	33.3	35	46.7	9	12.2	6	8	75	100
	이공대학	10	15.9	36	57.1	15	23.8	2	3.2	63	100
	야간강좌부	10	23.3	25	58.1	4	9.3	4	9.3	43	100
성별	남학생	67	23.0	174	59.8	32	11.0	18	6.2	291	100
	여학생	26	14.4	120	66.3	21	11.6	14	7.7	181	100
계 (평균비율)		93	19.7	294	62.3	53	11.2	32	6.8	4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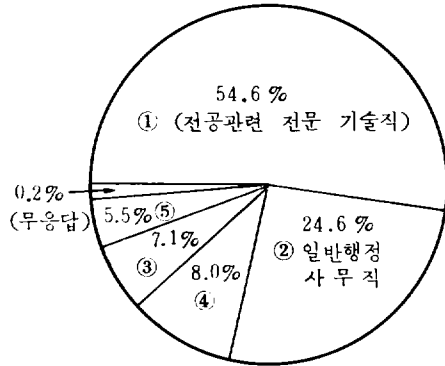
(무응답 4명 제외)

위 그림을 보면 ②의 경우가 가장 높아 총 472명 중 62.3%에 해당하는 294명였으며 ①④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학생을 대별해 보면 ②를 원하는 경우 여학생(66.3%)이 남학생(59.8%) 보다 높게 나타나며 ①인 경우는 남학생(23.0%)에 비해 여학생(14.4%)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 단과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은 해양과학대학(33.3%), ②는 농과대학(77.9%), ③은 이공대학(23.8%), ④는 인문대학(14.3%)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4) 어떤 분야에 취업을 원하십니까?

<그림 4-4>



본 설문은 5개의 문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 조사했다.

- ① 전공과 관련된 전문 기술직
- ② 일반행정 사무직
- ③ 전공과 무관한 특정 전문직
- ④ 판매·서비스직
- ⑤ 기타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총 476명 중 ①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②가 24.6%, ④가 8.0% 순으로 나타났는데 원편 그림은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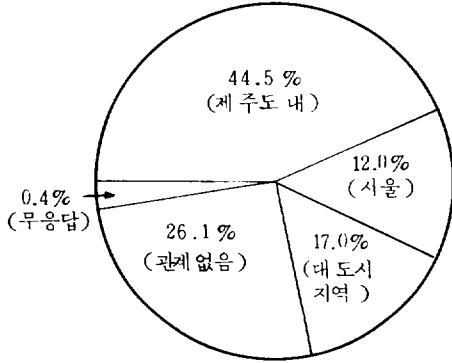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	인문대학	25	35.2	16	22.5	9	12.7	12	16.9	9	12.7	-	-	71	100
	사회과학대학	29	36.7	32	40.5	3	3.8	9	11.4	6	7.6	-	-	79	100
	사범대학	50	76.9	4	6.2	5	7.7	4	6.2	2	3.1	-	-	65	100
	농과대학	49	63.6	18	23.4	5	6.5	2	2.6	3	3.9	-	-	77	100
	해양과학대학	50	66.7	16	21.3	5	6.7	3	4.0	1	1.3	-	-	75	100
	이공대학	35	53.0	18	27.3	6	9.1	2	3.0	4	6.1	1	1.5	66	100
	야간강좌부	22	51.2	13	30.2	1	2.3	6	14.0	1	2.3	-	-	43	100
성별	남학생	167	56.8	71	24.2	17	5.8	23	7.8	15	5.1	1	0.3	294	100
	여학생	93	51.1	46	25.3	17	9.3	15	8.2	11	6.0	-	-	102	100
계 (평균비율)		260	54.6	117	24.6	34	7.1	38	8.0	26	5.5	1	0.2	476	100

<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①을 원하는 학생은 56.8%로 여학생(51.0%)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②③④⑤의 경우는 여학생이 더 높게 집계되었다. 특히 <그림 4-4>에서 보면 ①+②의 경우가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②의 경우 구성비가 ①보다 높은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40.5%) 뿐이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보여진다.

항목별로 분류하면 ①의 경우 사범대학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②는 사회과학대학(40.5%), ③은 인문대학(12.7%), ④도 인문대학(1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만일 당신이 취업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길 원하십니까?

<그림 4-5>



본 설문은 취업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작성되었으며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의 문항으로 설정했다.

- ① 제주도 내, ② 서울, ③ 대도시 지역, ④ 지역과 관계 없다.

조사 결과는 총 476명 가운데 44.5%에 해당하는 212명이 본도에 근무하길 희망하며 ④③②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①		②		③		④		무응답 ⑤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 학별	인문대학	27	38.0	6	8.5	14	19.7	24	33.8	-	-	71	100
	사회과학대학	29	36.7	8	10.1	15	19.0	26	32.9	1	1.3	79	100
	사범대학	28	43.1	8	12.3	10	15.4	19	29.2	-	-	65	100
	농과대학	52	67.5	10	13.0	3	3.9	12	15.6	-	-	77	100
	해양과학대학	32	42.7	13	17.3	16	21.3	14	18.7	-	-	75	100
	이공대학	20	30.3	10	15.2	13	19.7	22	33.3	1	1.5	66	100
	야간강좌부	24	55.8	2	4.7	10	23.3	7	16.3	-	-	43	100
성별	남학생	138	46.9	30	10.2	45	15.3	79	26.9	2	0.7	294	100
	여학생	74	40.7	27	14.8	36	19.8	45	24.7	-	-	182	100
계 (평균비율)		212	44.5	57	12.0	81	17.0	124	26.1	2	0.4	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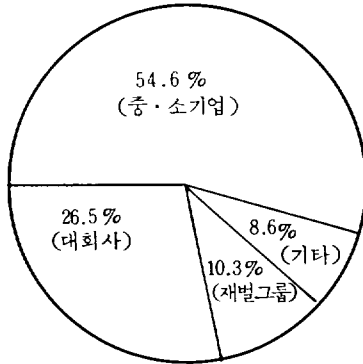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①의 경우에 남학생(46.9%)이 여학생(40.7%)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②와 ③의 경우는 여학생이 14.8%, 19.8%로 남학생(10.2%, 15.3%)보다 높게 나타나 본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이 타도로 나가려는 성향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항목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①은 농과대학(67.5%), ②는 해양과학대학(17.3%), ③은 야간강좌부(23.3%), ④는 인문대학(3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당신이 취업을 원하는 회사의 규모는?

본 대학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의 규모는 재벌그룹(10.3%)이나 대회사(26.5%) 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높게 나타나 5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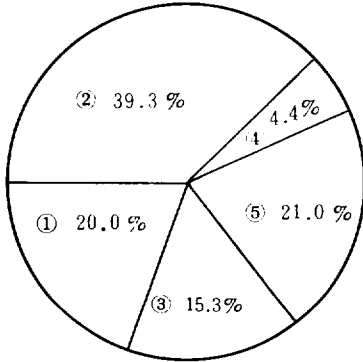
<표 4-7>

		재벌그룹		대 회사		중·소기업		기 타		계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4	5.6	19	26.8	45	63.4	3	4.2	71	100
	사회과학대학	4	5.1	25	31.7	50	63.3	-	-	79	100
	사범대학	10	15.4	15	23.1	26	40.0	14	21.5	65	100
	농과대학	7	9.1	22	28.6	41	53.3	7	9.1	77	100
	해양과학대학	15	20.0	22	29.3	38	50.7	-	-	75	100
	이공대학	5	7.6	17	25.8	33	50.0	11	16.7	66	100
	야간강좌부	4	9.3	6	14.0	27	62.8	6	14.0	43	100
성별	남학생	31	10.5	75	25.5	163	55.4	25	8.5	294	100
	여학생	18	9.9	51	28.0	97	53.3	16	8.8	182	100
계 (평균비율)		49	10.3	126	26.5	260	54.6	41	8.6	476	100

항목별 단과대학의 추세를 살펴보면 해양과학대학이 20.0%로 재벌그룹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사범대학(15.4%) 순이다. 대회사를 원하는 경우는 사회과학대학이 31.7%로 가장 높고 야간강좌부는 14.0%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인문대학이 63.4%, 사회과학대학이 63.3%, 야간강좌부가 62.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7)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림 4-7>



본 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설정 조사하였다.

- ① 자아개발 ② 사회참여
- ③ 전공지식 활용 ④ 장래 희망

<표 4-8>

		①		②		③		④		무응답 ⑤		계	
		N	%	N	%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6	22.5	27	38.0	8	11.3	17	23.9	3	4.2	71	100
	사 회 과 학 대 학	11	13.9	38	48.1	9	11.4	15	19.0	6	7.6	79	100
	사 범 대 학	19	29.2	25	38.5	10	15.4	8	12.3	3	4.6	65	100
	농 과 대 학	15	19.5	28	36.4	11	14.3	16	20.8	7	9.1	77	100
	해 양 과 학 대 학	11	14.7	24	32.0	24	32.0	16	21.3	-	-	75	100
	이 공 대 학	13	19.7	28	42.4	6	9.1	18	27.3	1	1.5	66	100
	야 간 강 좌 부	10	23.3	17	39.5	5	11.6	10	23.3	1	2.3	43	100
성 별	남 학 생	46	15.7	100	34.0	59	20.1	81	27.6	8	2.7	294	100
	여 학 생	49	26.9	87	47.8	14	7.7	19	10.4	13	7.1	182	100
계 (평균비율)		95	20.0	187	39.3	73	15.3	100	21.0	21	4.4	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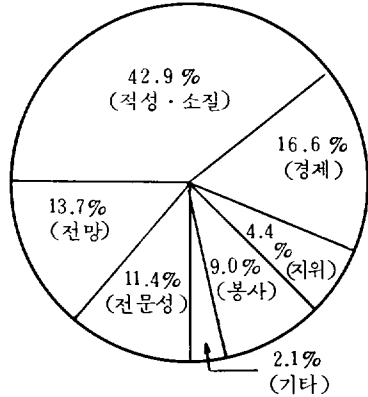
조사 결과 <그림 4-7>에서와 같이 ②의 경우가 총 476명중 187명에 해당하는 39.3%로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④ (21.0%), ① (20.0%) 순이다.

특히 ①과 ②의 측면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욱 높게 나타나 각각 20.0%, 39.3%를 점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의 경우가 사범대학이 가장 높아 29.2%를, ②는 사회과학대학(48.1%), ③은 해양과학대학(32.0%), ④는 이공대학(27.3%)으로 각각 나타난다.

(8) 직업선택시 기준

<그림 4-8>



본 대학 학생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개의 문항을 작성 집계하였다.

- ① 경제적인 면 ② 사회적 지위
- ③ 사회에의 봉사 ④ 장래 전망
- ⑤ 직업의 전문성 ⑥ 자신의 적성과 소질
- ⑦ 기 타

<표 4-9>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⑦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3	18.3	1	1.4	4	5.6	8	11.3	9	12.7	35	49.3	1	1.4	71	100
	사 회 과 학 대 학	12	15.2	6	7.6	4	5.1	10	12.7	11	13.9	33	41.8	3	3.8	79	100
	사 범 대 학	5	7.7	1	1.5	10	15.4	5	7.7	9	13.9	34	52.3	1	1.5	65	100
	농 과 대 학	16	20.8	3	3.9	9	11.7	16	20.8	5	6.5	28	36.4	-	-	77	100
	해 양 과 학 대 학	9	12.0	4	5.3	7	9.3	15	20.0	13	17.3	27	36.0	-	-	75	100
	이 공 대 학	14	21.2	2	3.0	4	6.1	7	10.6	7	10.6	28	42.4	3	6.1	66	100
	야 간 강 좌 부	10	23.3	4	9.3	5	11.6	4	9.3	-	-	19	44.2	1	2.3	43	100
성 별	남 학 생	53	18.0	12	4.1	25	8.5	44	15.0	39	13.3	112	38.1	8	2.7	294	100
	여 학 생	26	14.3	9	5.0	18	9.9	21	11.5	15	8.2	92	50.6	1	0.55	182	100
계 (평균비율)		79	16.6	21	4.4	43	9.0	65	13.7	54	11.4	204	42.9	1	2.1	476	100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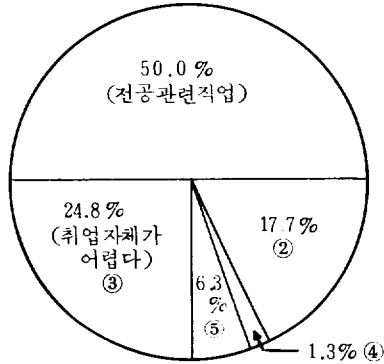
본 대학 학생들은 ⑥의 경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 476명 중 42.9%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집계됐다. 다음이 ① (16.6%), ②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학생의 경우를 보면 여학생이 50.6%로 ⑥을 중요시하는 반면 남학생은 38.1% 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며 ①④⑤의 경우는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의 경우는 야간강좌부(23.3%), ②는 역시 야간강좌부(9.3%), ③은 사범대학(52.3%)이 각각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9) 현재의 취업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그림 4-9>



본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을 설정 조사하였다.

- ①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취업
- ②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취업
- ③ 취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 ④ 취업을 원치 않음
- ⑤ 기 타

<그림 4-10>

		①		②		③		④		⑤		계	
		N	%	N	%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22	31.0	16	22.5	26	36.6	1	1.4	6	8.5	71	100
	사회과학대학	41	51.9	17	21.5	10	12.7	-	-	11	13.9	79	100
	사범대학	35	53.9	14	21.5	15	23.1	-	-	1	1.5	65	100
	농과대학	36	46.8	16	20.8	22	28.6	3	3.9	-	-	77	100
	해양과학대학	51	68.0	7	9.3	13	17.3	1	1.3	3	4.0	75	100
	이공대학	31	47.0	9	13.6	18	27.3	-	-	7	12.1	66	100
	야간강좌부	22	51.2	5	11.6	14	32.6	1	2.3	1	2.3	43	100
성 별	남 학생	164	55.8	39	13.3	67	22.8	5	1.7	18	6.1	294	100
	여 학생	74	40.7	45	24.7	51	28.0	1	0.6	11	6.0	132	100
계 (평균비율)		238	50.0	84	17.7	118	24.8	6	1.3	29	6.3	476	100

<그림 4-9>를 살펴보면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적지 않아 22.8%나 차지했다. 그리고 전공과 조금 거리가 먼 곳이라도 취업할 수 있다는 학생이 13.3%로 나타났다.

이를 남·여 학생으로 구분해 보면, 여학생은 전공과 조금 거리가 먼 곳에 취직할 수 있다(24.7%) 취업자체가 어렵다도 28.0%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며 남학생인 경우는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55.8%로 여학생의 그것(40.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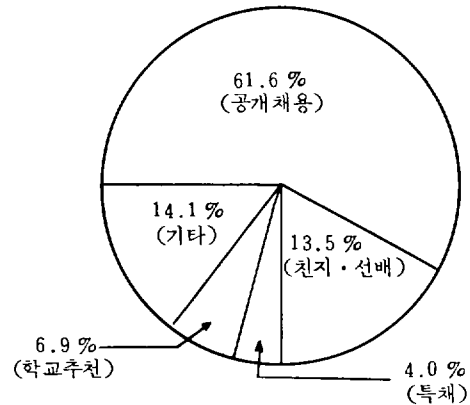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전공관련 직종은 해양과학대학(68.0%), 전공과 조금 거리가 먼 직종은 인문대학(22.5%), 취업 자체가 어렵다는 인문대학(36.6%)으로 각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당신이 취업하게 될 경우 어떤 형태의 채용방법으로 입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5 가지 문항을 설정 조사했다.

- ① 공개채용
- ② 친지·선배를 통해서
- ③ 학교추천
- ④ 특 채
- ⑤ 기 타

<그림 4-10>



<표 4-11>

		공개채용		친지·선배		학교추천		특 채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32	45.1	15	21.1	3	4.2	3	4.2	18	25.4	71	100
	사회과학대학	52	65.8	8	10.1	8	10.1	2	2.5	9	11.4	79	100
	사범대학	38	58.5	11	16.9	3	4.6	1	1.5	12	18.5	65	100
	농과대학	53	68.8	7	9.1	5	6.5	6	7.8	6	7.8	77	100
	해양과학대학	47	62.7	11	14.7	5	6.7	3	4.0	9	12.0	75	100
	이공대학	33	50.0	10	15.2	7	10.6	4	6.1	12	18.2	66	100
	야간강좌부	38	88.4	2	4.7	2	4.7	-	-	1	2.3	43	100
성별	남학생	196	66.7	24	8.2	20	6.8	15	5.1	39	13.3	294	100
	여학생	97	53.3	40	22.0	13	7.1	4	2.2	28	15.4	182	100
계 (평균비율)		293	61.6	64	13.5	33	6.9	19	4.0	67	14.1	476	100

조사 결과는 위 <표4-11>과 같다. <그림 4-10>에서 나타나 있듯이 ①의 방법이 61.6%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여학생이 53.3%인데 비해 남학생은 6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보면, 야간강좌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88.4%, 다음이 농과대학(68.8%) 순이다.

②의 방법은 13.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가 22.0%로 남학생(8.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이 21.1%로 높고 그 다음이 사범대학(16.9%) 순이다.

③의 방법인 경우 전체의 6.9%에 해당하는데 단과대학별로는 이공대학(10.6%), 사회과학대학(10.1%) 순이다.

④의 방법은 4.0%를 차지하는데 남학생인 경우가 5.1%로 여학생(2.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과대학 중에는 인문대(25.4%), 사범대(8.5%), 이공대(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①②③④ 외의 방법으로 입사할 수 있는 경우는 14.1%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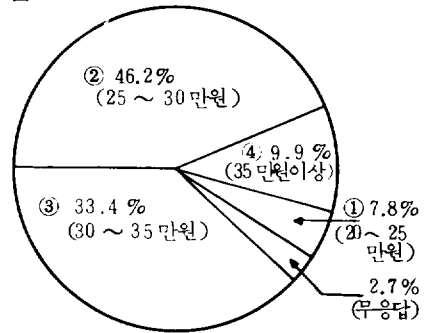
(II) 당신은 대출 신입사원인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설문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문항으로

< 그림 4-11 >

작성 설문하였다.

- ① 20~25 만원
- ② 25~30 만원
- ③ 30~35 만원
- ④ 35 만원 이상



< 표 4-12 >

		①		②		③		④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1	1.4	43	60.6	15	21.1	10	14.1	2	2.8	71	100
	사회과학대학	7	8.9	40	50.6	18	35.4	4	5.1	-	0	79	100
	사범대학	4	6.2	32	49.2	27	41.5	2	3.1	-	0	65	100
	농과대학	14	18.2	33	42.9	24	31.2	2	2.6	4	5.2	77	100
	해양과학대학	3	4.0	25	33.3	29	38.7	18	24.0	-	0	75	100
	이공대학	5	7.6	28	42.4	19	28.8	7	10.6	7	10.6	66	100
	야산강좌부	3	7.0	19	44.2	17	39.5	4	9.3	-	0	43	100
성별	남학생	16	5.4	100	37.4	119	40.5	42	14.3	7	2.4	294	100
	여학생	21	11.5	110	60.4	40	22.0	5	2.7	6	3.3	182	100
계 (평균비율)		37	7.8	220	46.2	159	33.4	47	9.9	13	2.7	476	100

본 대학 학생의 경우 ②의 수준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33.4%로 ③의 수준인데 ②+③이 전체의 79.6%나 차지한다. 반면 ①은 7.8% ④가 조금 높은 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③의 경우가 40.5%로 가장 높고, 여학생인 경우는 ②의 경우가 60.4%로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 이를 살펴보면 ①의 경우는 농과대학이 18.2%, ②의 경우는 인문대학이 60.6%, ③의 경우는 사범대학이 41.5%, ④인 경우는 해양과학대학이 24.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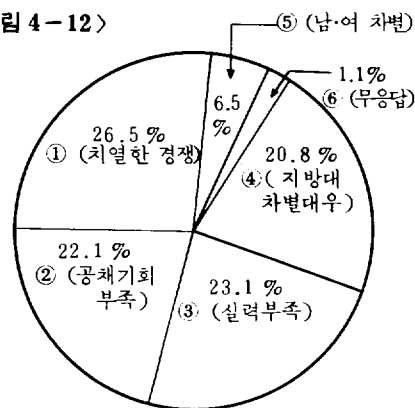
(12) 취업상의 애로점은?

본 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을 설정 설문하였다.

- ① 경쟁의 치열
- ② 공채기회의 부족
- ③ 자신의 실력 부족
- ④ 지방대학의 차별대우
- ⑤ 남·여 차별 때문

조사결과는 ①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③(23.1%), ②(22.1%), ④(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표 4-13>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⑥		계	
		N	%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9	12.7	16	22.5	22	31.0	17	23.9	7	9.9	-	-	71	100
	사회과학대학	21	26.6	14	17.7	17	21.5	19	24.1	6	7.6	2	2.5	79	100
	사범대학	30	46.2	15	23.1	9	13.9	10	15.4	1	1.5	-	-	65	100
	농과대학	19	24.7	15	19.5	25	32.5	14	18.2	4	5.2	-	-	77	100
	해양과학대학	25	33.3	24	32.0	9	12.0	14	18.7	3	4.0	-	-	75	100
	이공대학	9	13.6	9	13.6	16	24.2	29	30.3	9	13.6	3	4.6	66	100
	야간강좌부	13	30.2	12	27.9	12	27.9	5	11.6	1	2.3	-	-	43	100
성별	남학생	78	26.5	58	19.7	73	24.8	78	26.5	4	1.4	3	1.0	294	100
	여학생	48	26.4	47	25.8	37	20.3	21	11.5	27	14.8	2	1.1	182	100
계 (평균비율)		126	26.5	105	22.1	110	23.1	99	20.8	31	6.5	5	1.1	476	100

역시 ⑤의 경우는 여학생이 14.8%로 남학생 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인 경우 ① (26.5%), ④ (26.5%)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를 항목별 단과대학의 추이를 살펴보면

①이 사범대학(46.2%)으로 가장 높고 ②가 해양과학대학(32.0%) ③이 농과대학(32.5%) ④가 이공대학(30.3%) ⑤도 이공대학(13.6%)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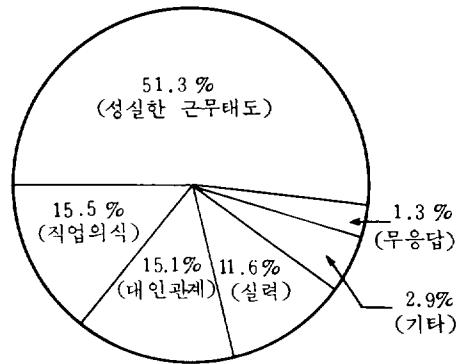
(13)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

본 대학 학생들은 취직이 되었을 경우 직장인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 가지 문항을 설정 설문했다.

- ① 철저한 직업의식
- ② 남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
- ③ 성실한 태도
- ④ 원만한 대인관계
- ⑤ 기타

조사결과를 <그림 4-13>과 <표 4-14>에 집계했다.

<그림 4-13>



<표 4-14>

		철저한 직업의식		남에게 지지 않는 실력		성실한 근무태도		원만한 대인관계		기타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6	8.5	12	16.9	36	50.7	11	15.5	6	8.45	-	-	71	100
	사회과학대학	14	17.7	13	16.5	38	48.1	8	10.1	3	3.8	3	3.8	79	100
	사범대학	10	15.4	4	6.2	44	67.7	7	10.8	-	-	-	-	65	100
	농과대학	8	10.4	9	11.7	42	54.5	18	23.4	-	-	-	-	77	100
	해양과학대학	15	20.0	19	25.3	30	40.0	10	13.3	1	1.3	-	-	75	100
	이공대학	13	19.7	4	6.1	33	50.0	11	16.7	2	3.0	3	4.5	66	100
	야간강좌부	8	18.6	5	11.6	21	48.8	7	16.3	2	4.7	-	-	43	100
성별	남학생	55	18.7	42	14.3	139	47.3	43	14.6	12	4.1	3	1.0	294	100
	여학생	19	10.4	24	13.2	105	57.7	29	15.9	2	1.1	3	1.6	182	100
계 (평균비율)		74	15.5	66	11.6	344	51.3	72	15.1	14	2.9	6	1.3	476	100

표에서 보면 총 인원 476명중 51.3%에 해당하는 244명의 학생이 ③을 들고 있으며 ①은 18.7%, ④는 14.6%, ②는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 학생으로 살펴보면 ③은 여(57.7%), 남(47.3%)으로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반면 ①은 남(18.7%), 여(10.4%)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가장 높은 대학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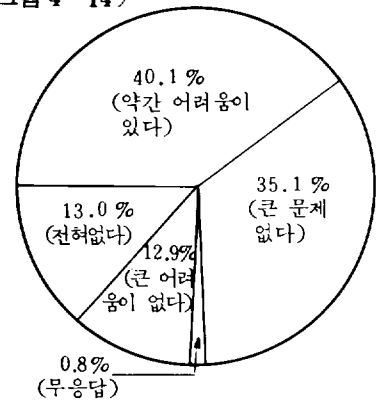
①은 해양과학대학(20.0%), ②는 해양과학대학(25.3%), ③은 사범대학(67.7%), ④는 농과대학(23.4%) 순으로 나타났다.

(14) 제주대학생도 실력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취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설문을 아래와 같이 4개의 문항으로 작성 조사한 결과는 <그림 4-14>와 <표 4-15>이다.

- ① 전혀 없다고 본다.
- ② 큰 문제는 없다.
- ③ 어려움이 약간 있다.
- ④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림 4-14>



<표 4-15>

		전혀 없다		큰 문제없다		어려움이 약간 있다		큰 어려움이 있다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6	8.5	22	31.0	34	47.9	9	12.7	-	-	71	100
	사 회 과 학 대 학	11	13.9	43	54.4	22	27.8	3	3.8	-	-	79	100
	사 범 대 학	13	20.0	21	32.3	23	35.4	8	12.3	-	-	65	100
	농 과 대 학	10	13.0	28	36.4	30	39.0	6	7.8	3	3.9	77	100
	해 양 과 학 대 학	6	8.0	26	34.7	34	45.3	9	12.0	-	-	75	100
	이 공 대 학	8	12.1	15	22.7	34	51.5	8	12.1	1	1.5	66	100
	야 간 강 좌 부	8	18.6	12	27.9	14	32.6	9	20.9	-	-	43	100
성 별	남 학 생	35	11.9	99	33.7	118	40.1	38	12.9	4	1.4	294	100
	여 학 생	27	14.8	68	37.4	73	40.1	14	7.7	0	-	182	100
계 (평균비율)		62	13.0	167	35.1	191	40.1	52	10.9	4	0.8	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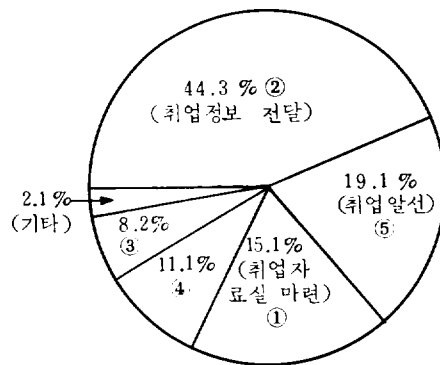
〈그림 4-14〉에 나타나 있듯이 ③의 경우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큰 문
제 없다가 35.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①의 경우는 13.0%에 불과했다. 특히 ①의
경우는 여학생이 14.8%로 남학생(11.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④는 남학생이 12.9%로 여
학생(7.7%)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면
에서도 실력과 노력을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학생 즉 ②+③+④가 85.1%로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5) 취업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요구할 사항은?

본 설문은 본대학 학생들은 취업을 하
기 위해서 학교 당국이 어떠한 부분들 도
와주길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6가
지 문항을 설정 조사했다.

- ① 취업 자료실 마련
- ② 신속한 취업정보 전달
- ③ 취업관계 특강실시
- ④ 취업시험에 필요한 과목 특강실시
- ⑤ 학교당국이 적극적인 취업알선
- ⑥ 기 타

〈그림 4-15〉



〈표 4-16〉

		취업 자료실 마련 ①		취업정보 전달 ②		취업관계 특강 ③		취업에 필요한 과목특강실시 ④		학교 취업 알선 ⑤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14	19.7	35	49.3	1	14.1	5	7.0	16	22.5	-	-	71	100
	사회과학대학	9	11.4	38	48.1	8	10.1	7	8.9	14	17.7	3	3.8	79	100
	사범대학	6	9.2	25	38.5	6	9.2	9	13.8	19	29.2	-	-	65	100
	농과대학	3	3.9	40	51.9	4	5.2	11	14.3	15	19.5	4	5.2	77	100
	해양과학대학	30	40.0	24	32.0	12	16.0	5	6.7	4	5.3	-	-	75	100
	이공대학	7	10.6	28	42.4	7	10.6	8	12.1	14	21.2	2	3.0	66	100
	야간강좌부	3	7.0	21	48.8	1	2.3	8	18.6	9	20.9	1	2.3	43	100
성 별	남 학생	49	16.7	128	43.5	25	8.5	36	12.2	47	16.0	9	3.1	294	100
	여 학생	23	12.6	83	45.6	14	7.7	17	9.3	44	24.2	1	0.6	182	100
계 (평균비율)		72	15.1	211	44.3	39	8.2	53	11.1	91	19.1	10	2.1	476	100

학교 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②가 44.3%로 가장 높고 ⑤ (19.1%), ① (15.1%)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①③④가 조금씩 높게 나타난 반면 ②⑤에 대한 요구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①의 경우 항목별로 가장 높은 단과대학을 보면

①은 해양과학대학(40.0%), ②는 농과대학(51.9%), ③은 해양과학대학(16.0%), ④는 야간강좌부(18.6%), ⑤는 사범대학(29.2%)로 나타난다.

특기할 사항은 ③이 8.2%인데 비해 ④가 11.1%로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③이 추상적인데 비해 ④가 현실적이고 절실하다는 의미로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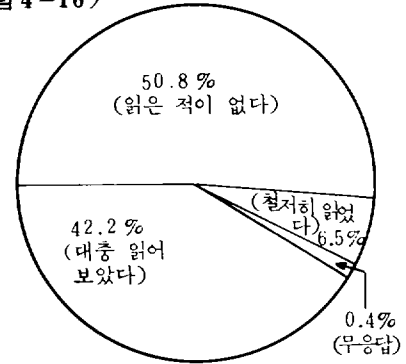
(16) 당신은 우리 대학에서 발행되는 “진로정보”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본 설문은 3개의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 ① 철저히 읽어 보았다.
- ② 대충 읽어 보았다.
- ③ 읽은 적이 없다.

조사결과 총 476명중 50.8%에 해당하는 242명이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대충 읽어 보았다”(42.2%), “철저히 읽었다”(6.5%) 순으로 학내 발행 “진로정보”지의 홍보가 잘 안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4-16>



<표 4-17>

		철저히 읽어 보았다 ①		대충 읽어 보았다 ②		읽은 적이 없다 ③		무응답 ④		계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4	5.6	34	47.9	33	46.5	-	0	71	100
	사회과학대학	4	5.1	38	48.1	37	46.8	-	0	79	100
	사범대학	3	4.6	22	33.9	40	61.5	-	0	65	100
	농과대학	3	3.9	33	42.9	39	50.6	2	2.6	77	100
	해양과학대학	8	10.7	35	46.7	32	42.7	-	0	75	100
	이공대학	4	6.1	26	39.4	36	54.6	-	0	66	100
	야간강좌부	5	11.6	13	30.2	25	58.1	-	-	43	100
성별	남학생	22	7.5	142	48.3	128	43.5	2	0.7	294	100
	여학생	9	5.0	59	32.4	114	62.6	-	0	182	100
계 (평균비율)		31	6.5	201	42.2	242	50.8	2	0.4	476	100

남학생의 경우는 ①+②가 차지하는 비율이 55.8%이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③의 경우가 더 높아 62.6%를 차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보다 취직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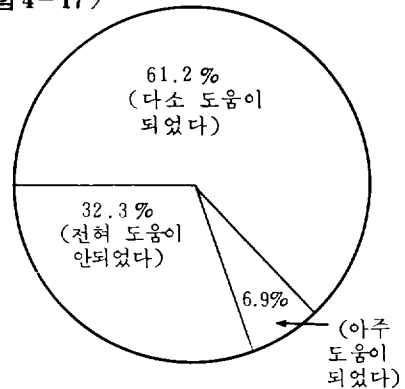
항목별로 보면 ①-야간강좌부(11.6%), ②-사회과학대학(48.1%), ③-야간강좌부(5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야간강좌부가 양극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우리 대학에서 발행되는 “진로정보”지를 읽어 보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진로 정보지를 읽은 적이 있는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문항을 설정 조사하였다.

- ① 아주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림 4-17>



<표 4-18>

		아주 도움이 되었다 ①		다소 도움 ②		전혀 도움이 안됐다 ③		계	
		N	%	N	%	N	%	N	%
단 과 대 학 별	인 문 대 학	2	5.3	21	55.3	15	39.5	38	100
	사 회 과 학 대 학	3	7.1	28	66.7	11	26.2	42	100
	사 범 대 학	1	4.0	12	48.0	12	48.0	25	100
	농 과 대 학	2	5.6	25	69.4	9	25.0	36	100
	해 양 과 학 대 학	3	7.0	30	69.8	10	23.3	43	100
	이 공 대 학	2	6.7	16	53.3	12	40.0	30	100
	야 간 강 좌 부	3	16.7	10	55.6	5	27.8	18	100
성 별	남 학 생	11	6.7	106	64.6	47	28.7	164	100
	여 학 생	5	7.4	36	52.9	27	39.7	68	100
계 (평균비율)		16	6.9	142	61.2	75	32.3	232	100

조사결과 ②의 경우가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①은 6.9%에 불과하며 오히려 ③의 경우가 32.3%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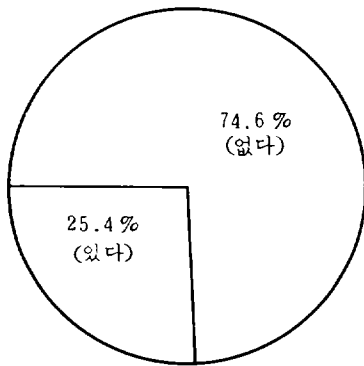
특히 [설문16] 과 연관지어 볼 때 현 학교발행 “진로정보”지는 편집과 홍보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학생인 경우 ③의 비율은 남학생 (28.7%) 보다 높은 39.7%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목별 단과대학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①의 경우는 야간강좌부가 16.7%, ②는 해양과학대학(69.8%), ③은 사범대학(48.0%)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 당신은 취업문제로 지도교수와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설문을 “있다”, “없다”로 문항을 작성 조사한 결과 476명중 25.4%에 해당하는 121명만이 “있다”로 나타났으며 74.6%가 없자로 나타났다.

남학생인 경우가 여학생보다 지도교수와 상의해본 적이 있는 학생이 높아 29.9%이고 여학생은 18.1%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있다”는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31.6%로 가장 높고 해양과학대학(30.7%), 야간강좌부(27.9%) 순이며 “없다”는 학생은 인문대학(84.5%), 농과대학(74.0%)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8 >



< 표 4-19 >

	있 다		없 다		계	
	N	%	N	%	N	%
인 문 대 학	11	15.5	60	84.5	71	100
단 사회과학대학	25	31.6	54	68.4	79	100
과 사 회 대 학	12	18.5	53	81.5	65	100
대 농 과 대 학	20	26.0	57	74.9	77	100
학 해양과학대학	23	30.7	52	69.3	75	100
별 이 공 대 학	18	27.3	48	72.7	66	100
야 간 강 좌 부	12	27.9	31	72.1	43	100
성 남 학 생	88	29.9	206	70.1	294	100
별 여 학 생	33	18.1	149	81.9	182	100
계 (평균비율)	121	25.4	355	74.6	476	100

(19) 상의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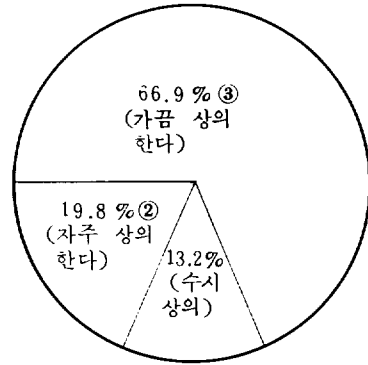
[설문18]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이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했다.

- ① 수시로 상의했다.
- ② 자주 상의하는 편이다.

③ 가끔 상의한다.

〈그림 4-19〉

본 설문에 응한 학생수 총 121명 중에 66.9%에 해당하는 81명이 ③ 즉 가끔 상의한다고 함으로써 가장 높고, ② (19.8%), ① (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수시로 상의했다 ①		자주 상의하는 편 ②		가끔 상의한다 ③		계	
		N	%	N	%	N	%	N	%
단과대 학	인문대학	1	9.1	1	9.1	9	81.8	11	100
	사회과학대학	5	20.0	2	8.0	18	72.0	25	100
	사범대학	4	33.3	3	25.0	5	41.7	12	100
	농과대학	3	15.0	5	25.0	12	60.0	20	100
	해양과학대학	2	8.7	5	21.7	16	69.0	23	100
	이공대학	1	5.6	5	27.8	12	66.7	18	100
	야간강좌부	0	-	3	25.0	9	75.0	12	100
성별	남학생	13	14.8	20	22.7	55	62.5	88	100
	여학생	3	9.1	4	12.1	28	78.8	33	100
계 (평균비율)		16	13.2	24	19.8	81	66.9	121	100

특히 남학생의 경우 ①과 ②가 각각 14.8%, 22.7%로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가 보다 적극적이라고 보아진다.

항목별로 단과대학을 살펴보면 ①인 경우는 사범대학(33.3%), ②는 이공대학(27.8%), ③은 인문대학 (8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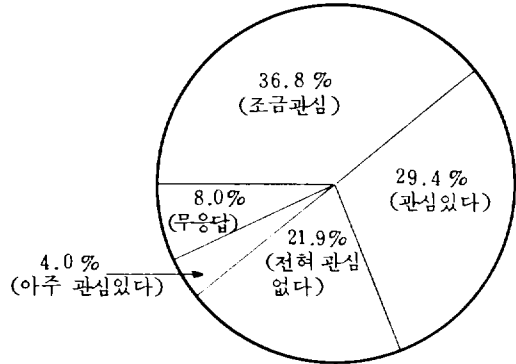
(20) 당신은 지도교수가 당신의 취업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설문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 1) 아주 관심이 있다.

- ② 관심이 있다.
- ③ 조금 관심이 있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림 4-20>



조사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1>

		아주 관심이 있다 ①		관심이 있다 ②		조금 관심이 있다 ③		전혀 관심이 없다 ④		무응답 ⑤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1	1.4	13	18.3	24	47.9	27	38.0	6	8.4	71	100
	사회과학대학	3	3.8	22	27.8	36	45.6	10	12.7	8	10.1	79	100
	사범대학	3	4.6	10	15.4	32	49.2	15	23.1	5	7.7	65	100
	농과대학	4	5.2	22	28.6	24	31.2	19	24.7	8	10.4	77	100
	해양과학대학	3	4.0	36	48.0	30	40.0	6	8.0	-	-	75	100
	이공대학	5	7.6	20	30.3	17	25.8	13	18.7	11	16.7	66	100
	야간강좌부	-	-	17	39.5	12	27.9	14	32.6	-	-	43	100
성별	남학생	13	4.4	103	35.0	99	33.7	57	19.4	22	7.5	294	100
	여학생	6	3.3	37	20.3	76	41.8	47	25.8	16	8.8	182	100
계 (평균비율)		19	4.0	140	29.4	175	36.8	104	12.9	38	8.0	476	100

총 학생 476명중 36.8%에 해당하는 175명이 조금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관심이 있다가 29.4%, 전혀 관심이 없다가 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①과 ②는 낮게 나타나며 ③과 ④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학생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의 경우는 이공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야간강좌부인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②는 해양과학대학(48.0%), ③은 사범대학(49.2%), ④는 인문대학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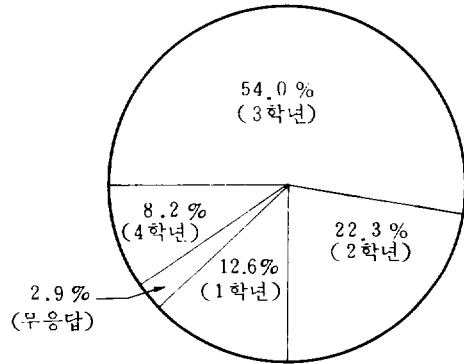
특기할 것은 야간강좌부에서는 ①의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1) 취업은 몇 학년 때부터 계획하는가?

총 476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 학년 때 한다는 학생이 전체의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 때 하는 학생은 22.3%, 1학년 때 12.6%였으며 4학년 때 한다는 학생도 8.2%나 되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1>



<표 4-22>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무응답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학별	인문대학	5	7.0	13	18.3	45	63.4	8	11.3	-	-	71	100
	사회과학대학	10	12.7	21	26.6	42	53.2	5	6.3	1	1.3	79	100
	사범대학	11	16.9	13	20.0	28	43.1	9	13.8	4	6.2	65	100
	농과대학	3	3.9	21	27.3	41	53.2	6	7.8	6	7.8	77	100
	해양과학대학	15	20.0	15	20.0	43	57.3	2	2.7	-	-	75	100
	이공대학	9	13.6	11	16.7	34	51.5	9	13.6	3	7.6	66	100
	야간강좌부	7	16.3	12	27.9	24	55.8	-	-	-	-	43	100
성별	남학생	29	9.9	73	24.8	157	53.4	25	8.5	10	3.4	294	100
	여학생	31	17.0	33	18.1	100	54.9	14	7.7	4	2.2	182	100
계 (평균비율)	60	12.6	106	22.3	257	54.0	39	8.2	14	2.9	466	100	

위 표에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9.9%)보다 1학년때 계획하는율은 17.0%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1학년 때 계획한다는 학생은 해양과학대학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2학년 때는 야간강좌부(27.9%), 3학년 때는 인문대학(63.4%), 4학년 때는 사범대학(13.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며 야간강좌부인 경우 4학년 때 계획한다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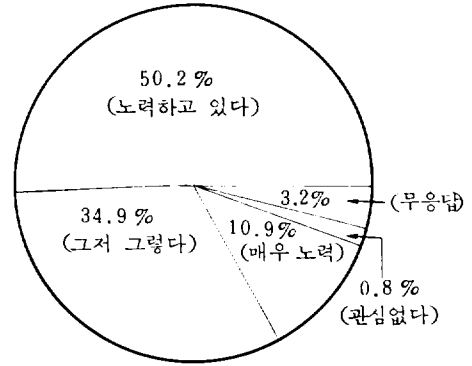
어쨌든 본 대학 학생들은 주로 2학년 때와 3학년 때 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현재의 취업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의 노력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항목을 작성 설문하였다.

< 그림 4-22 >

-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
- ② 노력하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관심 없다.



< 표 4-23 >

		매우 노력 ①		노력 ②		그저 그렇다 ③		관심 없다 ④		무응답 ⑤		계	
		N	%	N	%	N	%	N	%	N	%	N	%
단과대	인문대학	10	14.1	33	46.5	24	33.8	-	0	4	5.6	71	100
	사회과학대학	4	5.1	41	51.9	32	40.5	2	2.5	-	-	79	100
	사범대학	7	10.8	25	38.5	31	47.7	-	-	2	3.1	65	100
	농과대학	7	9.1	41	53.2	27	35.1	-	-	2	2.6	77	100
	해양과학대학	7	9.3	51	68.0	17	22.7	-	-	-	-	75	100
	이공대학	11	16.7	25	37.9	24	36.4	1	1.5	5	7.6	66	100
야간강좌부	6	14.0	23	53.5	11	25.6	1	2.3	2	4.7	43	100	
성별	남학생	36	12.2	160	54.4	80	27.2	3	1.0	15	5.1	294	100
	여학생	16	8.8	79	43.4	86	47.3	1	0.6	-	-	182	100
계 (평균비율)		52	10.9	239	50.2	166	34.9	4	0.8	15	3.2	476	100

총 476명 중 노력하고 있다는 학생은 50.2%에 해당하는 239명였으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매우 노력한다,” “노력하고 있다”가 각각 12.2%, 54.4%로 여학생보다 높고 “그저 그렇다” 47.3%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

각 항목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①은 이공대학(16.7%), ②는 해양과학대학(68.0%), ③은 사범대학(47.7%)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濟州大學校 卒業生の 就業擴大 方案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의 취업문제일 것이다. 취업은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생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대학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인력양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전통적인 대학교육 외에 현대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사회와 관련을 갖는 현실참여와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효과가 큰 2차산업은 미미한 실정이라 노동의 수요가 크지 않고 특히 대졸자의 취업문은 매우 작은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중앙과 원격히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곤란하고 여러가지 면으로 육지부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 취업여건이 불리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86학년도에 제주대학교 순수취업률(대학원 진학자, 군입대자 제외)은 전국종합대학교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83학년도에는 졸업생 837명 가운데 순수취업자가 373명으로 순수취업률이 44.6%로 나타났는데 '84학년도에는 35.7%, '85학년도에는 31.4%, '86학년도에는 21.9%로 순수취업률이 툭 떨어졌다.

앞으로 졸업생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대졸자의 취업여건은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갈수록 취업난은 심화될 형편이고 보편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취업문제가 심각한 지역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뼈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취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취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과 기업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대학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졸업생 취업을 요청하거나 기업에 제주대학교의 홍보용 책을 발송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소수이긴 하지만 기업에서 먼저 직원모집에 관한 정보나 추천서를 의뢰해 왔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극적 행동에서 벗어나 대학이 먼저 대학현황과 졸업생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2~300여 개의 기업체에 취업시즌 전에 발송하여 기업에게 제주대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기타 간행물들도 기업체에 발송함으로써 기업이 제주대학에 많은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기업이 여러가지 취업정보를 학교에 보내주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년마다 몇몇 주요 기

업체의 인사담당 책임간부를 대학에 초청하여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기업의 신입사원 선발 요령이라든지 취업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기업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주출신 기업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출신 인사들이 서울에서 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 이들 기업도 해마다 신입사원을 뽑고 있으므로 취업시즌 전에 대학당국은 직접 서울에 가서 이들 기업가들을 한자리에 모셔 놓고 대학의 현황과 졸업생의 현황을 설명하고 애항심을 고취시키면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제주대학생을 뽑아주도록 요청하는 것도 취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많은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도내기업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도내 기업체의 수는 적고 특히 대졸자의 취업문은 매우 좁지만 도내 주요 기업체와 동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그리고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취업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개개인의 친분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취업시켜 왔었지 학교당국과 책임자가 직접 도내 주요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지 못했었고 도내 대졸자의 취업수요도 제대로 파악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도내 기업체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되도록 학교당국은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취업부서를 하나로 종합시키고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취업담당부서는 학생처 장학담당관실과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복과 책임회피 등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보다 책임감 있게 효과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취업부서를 일원화하고 일원화된 부서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정보를 발간하고 취업자료실을 운영하여 각 학과 교수들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인 장학담당관실보다는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장학담당관실은 장학업무만을 취급하고 학생생활연구소는 졸업생의 취업알선, 자료발

간, 취업정보수집과 기업체와의 협력 등 졸업생의 취업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보도부장은 현행 건강 이상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교수급으로 상향하고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대우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취업에 따른 예산이 5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취업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증액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5. 취업자료실을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은 중앙과 원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외의 취업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또한 학생 개인이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취업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제주대학에는 아직까지도 취업자료실이 없는 실정이라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완벽한 취업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함과 아울러 일찍부터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일반선택 과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학과와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일반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에 잘 지도하여 졸업시 학생들이 선직을 하는데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취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예를 든다면 컴퓨터, 경제학, 경영학 등의 과목들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후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 선택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학점을 취득하기가 쉬운 과목 또는 편리한 과목들을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각 학과는 지도를 잘 해야 할 것이다.

7. 학과별 취업지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학과의 교수들이 적극성을 갖고 취업지도를 해야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학생들에게 취업의 중요성과 최근의 대졸취업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일찍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면서 취업정보의 활발한 제공과 취업 경향 그리고 올바른 직업관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학과 및 인접학과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재학시에 취득하도록 하며 취업시준 전에 취업시험에 대비한 요약특강 등을 각 학과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취업확대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홍기영 외 1인, 진로지도, 서울교육출판사, 1980.
2. 이영덕 외 1인,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교학도서, 1963.
3. 주세환, 진로지도의 기술, 현대교육도서 총서, 1964.
4. 고려대학교, 고등교육 인구의 수요와 적정규모, 고대 교육문제연구소, 1974.
5. 사회변천과 교육의 역할, 한국능력개발, 1977.
6. 황은영, 현대생활지도이론, 교육출판사, 1983.
7. 유기섭, 직업지도, 배영사, 1983.
8. 이무근, 실업기술교육론, 배영사, 1983.
9. 윤희준, 학업지도의 실제, 중앙적성연구소, 1979.
10. 김학수 외 4인, 대학생의 취업동향과 그 변동추세, 경북대, 학생생활연구소, 1971.
11. 이희도, 고등교육에서의 진로지도와 적응
12. 이명자, 진로지도, 경북대 학생생활연구소, 1981.
13. 오팔호, 대학에서의 직업지도 방향의 모색,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소, 1980.
14. 오팔호 외 1인, 본교 졸업생의 취업동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소, 1974.
15. 박동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대학교육과 진로지도, 충북대 학생생활연구소, 1984.
16.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연구 출판부, 1980.
17. ———, 미래산업사회의 직업구조 전망, 충남대 학생생활연구소, 1974.
18. 송병순, 대학생 직업지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남대 학생생활연구소, 1984.
19. F. Harbison & C. A.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N.Y., 1964.
20. Richard Rehbery, Career counseling in contemporary U.S. High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79.
21. S. G. Weinrach, How career choice are made, N. Y., 1975.
22. E. Ginzberg and Others, Occupation choice, N.Y., 1951.
23. O. D. Duncan,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 N.Y., 1972.
24. L. C. Thuro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Wadson Publishing, 1970.
25. K. E. Clark Vocational Interest Testing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 Y., 1974.